

국회의사당에서의 의회에 상주하는 언론 매체들의 행동강령

1 국회의사당에 들어갈 수 있는 언론 매체의 수는 제한됨.

국회의사당에 들어가는 언론 매체의 수를 제한함. 텔레비전 매체는 뉴스를 만들기 위해 통신사당 한 팀 (3명 이하)으로 들어올 수 있음. 신문 등 언론매체의 경우 신문사당 1명이 국회의사당에 입장하여 뉴스를 제작할 수 있음.



2 미디어 카드 교환을 일시적으로 자제

국회 언론 매체는 국회의사당에서 상시 선명하게 볼 수 있도록 가슴에 카드를 착용해야 함.



3 자가진단 문진표 작성

국회의사당을 방문 당일 전에 스마트폰(QR Code/ URL)으로 자가진단 문진표를 작성하여 국회의사당 들어가기 전에 이미 작성되어 있는 자가문진표를 담당자에게 보여 줌.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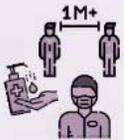
4 동선 추적 애플리케이션 스캔

'타이 차나' (Thai Chana)/'머 차나'(Mor Chana) 라는 어플을 스캔함. 국회의사당에 들어가기 전에 체온측정하여 무기 검사한 후 출입가능함.



5 마스크 착용

국회의사당 내에서는 항상 마스크를 올바르게 착용해야 하고 사회적 거리 두기 유지하며 손 소독제를 항상 이용함.



6 국회 의사당에서 취재

각종 회의실에서 취재하는 사람들은 항상 기자실 앞 카운터에 있는 기자단 담당자에게 먼저 알려달라고 요청함. 뉴스를 취재 대표자를 우선해 달라고 요청함으로써 텔레비전 사진작가 5명 이하, 채널당 1명, 사진작가 1명으로 제한됨.



7 언론의 공간 제한

국회의사당 1층에서만 취재함.

1. 국회의사당 1층 기자회견실은 평소 기자 회견을 위해 이용됨.
2. 국회의사당 1층 복도에 있는 인터뷰 공간은 하원의원들의 인터뷰에 사용됨.
3. 국회의사당 1층 (중앙 구역) 에 있는 서적 또는 민원 접수지는 외부로부터 개인/단체/기관 서적을 접수하는 데에 사용됨.



언론사, 의원, 공동기자회견/인터뷰/출간인들은 항상 마스크를 착용하고 거리두기를 엄격히 유지해야 함.



8 언론의 녹화 금지

하원 본회의실 메자닌층에서 녹화를 하는 것을 자제함.



9 여객 엘리베이터 이용

엘리베이터는 한 번에 최대 6명까지 사용할 수 있으며, 지정된 위치에서 엘리베이터 내에서 대화를 자제해야 함.



10 국회의사당에서의 식사하기

코로나관리센터 (CCSA)의 조치에 따라 자신의 사무실 또는 1층 공무원식당에서 거리를 유지하면서 식사를 하여야 함.

